

安龍福 제2차 渡日의 성격에 관한 고찰

- '조선의 密使' 안용복 -

崔英成*

〈목 차〉

1. 이끄는 말
2. 남구만·윤지완의 대일외교와 안용복의 도일
3. 남구만이 말한 '賤神專价'의 의미
4. '假稱鬱陵子山兩島監稅'
5. 義僧水軍과의 提携
6. 事後處理를 통해 본 밀사 문제
7. 후세의 평가와 밀사 문제
8.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안용복 일행이 1696년에 도일(渡日)한 것의 성격을 재검토한 것이다. 개인 차원이 아니라 정부 당국자가 밀사를 파견한 것이라는 점이 골자다. 밀사 파견의 배후로 지목되는 인물은 남구만(南九萬)과 윤지완(尹趾完)이다. 이들은 1694년에 집권한 소론(少論) 정권의 핵심 실세로서, 대일외교(對日外交)에서 남인(南人) 정권과는 달리 강경책을 폈다. 공식 사절을 파견하지 못한 것은 울릉도 문제에 대하여 각 정파 간의 인식차가 컸기 때문이다. 안용복 일행이 사신이었다는 점은 조선 측 공식 기록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본 측 사료의 경우 『죽도고(竹島考)』 등에서 밝힌 바 있다. 본고에서는 안용복 일행이 밀사였음을 다음과 같이 다각도로 고증하였다. ① 남·윤의 문집 등을 통해 그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choiys60@hanmail.net

이 밀사 파건을 주도하였음을 밝히고, ② 여수 흥국사(興國寺)에 소속된 5명의 의승수군(義僧水軍: 수군 소속의 승려)이 도일에 동참한 것을 통해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과의 연결고리를 탐색하였다. ③ 안용복 도일 이후 숙종과 남구만·윤지완 등이 시종 비밀을 지키는 가운데 정쟁(政爭)을 막고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했음을 고찰하였고, ④ 안용복 일행의 도일을 '밀사 파견'으로 파악한 문헌을 찾아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조선의 역사서에 안용복 사건이 개인의 일탈행위로 기록된 것은, 안용복 일행의 도일이 정부 당국자가 비밀리에 파견한 밀사였기 때문이다. 안용복의 제2차 도일은 '밀사 외교'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수많은 의문과 오해가 풀릴 것이다.

주제어: 제2차 도일, 밀사(密使), 남구만과 윤지완, 뇌헌(雷憲), 의승수군(義僧水軍), 동래부사(東萊府使)

1. 이끄는 말

안용복(1654-?) 연구는 '연구사'를 정리해야 할 정도로 축적되었다. 그러나 사료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는 데다가 해석상의 문제점이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측 일부 연구자들의 속보이는 해석은 더 말할 것이 없지만, 한국 측 연구자의 연구에도 허점이 적지 않다. 사료에 대한 엄정한 비판과 합리적인 해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그 기준은 **'과학성'(합리성)과 '이념성'**이라고 할 것이다.

2014년에 권오엽(權五曄) 교수가 '밀사 안용복'을 처음으로 거론하였다. 연구사에서 처음 있는 파천황(破天荒)의 주장이라 반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렇지는 못하였다.¹⁾ 권 교수는 '남구만(南九萬)의 밀사 안용복'이란 논고에서 남구만의 국방대책, 남구만과 안용복의 관계, **안용복이 남구만의 밀사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²⁾ 전후의 정황과 배경 설명에서 사실일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다만 자료 섭렵과 논증에

1) 안용복의 도일 목적이 '개인적 욕구 성취'에 있다고 보고, 남구만 배후설을 부정한 연구자도 있다. 尹載煥, 「약천 남구만이 바라본 안용복의 의미」, 『東方漢文學』 69, 동방한문학회, 2016, 334쪽 참조.

2) 권오엽은 「안용복의 實像」(2018)에서도 재차 주장하였다.

서 아쉬움을 남겼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남인정권이 실각하고 소론이 집권하였다. 소론의 영수 남구만·윤지완(尹趾完)은 국방·외교 문제를 ‘소리는 안 나게, 결과는 확실하게’ 해결하고자 하였다. 남구만은 윤지완을 통해, 또 안용복에게 얻은 자료를 통해, 울릉도(독도 포함) 문제의 실상을 명확하게 인식하였고, 마침내 안용복의 후견인이 되어 그를 밀사로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울릉도 문제는 정파 간의 인식 차이가 커서 공식 사행을 파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자칫하면 정쟁(政爭)의 불씨가 될 수도 있었다. **정쟁을 피하면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밀사 파견 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1694년 8월 이후, 영의정 남구만은 조정 회의에서, 온갖 비리 행위를 저질러 신뢰하기 어려운 쓰시마번(對馬藩)을 통하지 않고 막부(幕府)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후 왜관에는 조선이 외교 창구를 울릉도 ↔ 돛토리번(鳥取藩)으로 할 것을 타진한다는 소문이 금새 돌았다고 한다. 어찌보면 조선 조정에서 일본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퍼트린 감이 있었다. 이것은 2년 뒤 안용복의 도일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제2차 도일 당시 **일본 측에서는 안용복 일행을 외교 사절로 대접하였다.** 한 사료에서는 안용복에 대해 “아마도 그 섬(울릉도)에 매년 풍흉(豐凶)을 검사하기 위해 보낸 관인(官人)에게 호키주 사절을 겸임하게 했을 것이다”³⁾라고 하였다. **분명히 ‘사절’로 적었다.**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행이 조선으로 돌아갈 때 막부는 돛토리번에 지시하여 나가사키 → 쓰시마번을 경유하지 않고 동해상으로 가도록 했다.⁴⁾ 밀사가 아니라면

3) 권오엽 편주, 『岡嶋正義古文書』(선인, 2011), 340쪽 “恐クハ彼島へ毎歲豊凶ヲ監檢ノ爲遣シ候官人ニ伯州へノ使節ヲ兼テ渡海セシムル.”

4) 1696년 8월 6일, 돛토리번 가로항(賀露港)을 출발하였다. 아마도 도일 당시의 경로를 되돌아왔을 것이다. 8월 29일 강원도 양양에서 체포되기까지 약 3주간의 행적은 알 수 없다. 왜 양양으로 왔는지도 미스터리다. 필자는 황해도延安 출신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밀사에게 ‘비밀’은 생명이자.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은 물론 목숨까지도 불사(不辭)해야 한다. 밀사의 임무를 완수해도 사실은 은폐되기 십상이다. 안용복 관련 기록이 사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숨겨야만 했던’ 밀사의 태생적 한계 탓이다.

울릉도 쟁계(爭界)와 관련하여 조·일의 주요 자료를 보면, 일본 측 자료에서는 일단 ‘사신’임을 인정한다. 이에 비해 조선 측 자료는 사신임을 직접 언급한 경우가 없고 대부분 개인의 일탈로 적었다. 일본 측에는 2005년에 발굴된 『원록각서(元祿覺書)』⁵⁾ 같은 제1차 자료가 있는데 비해 조선 측 자료는 제2차 자료가 많은 편이다. 오늘날 한국 측 연구자는 제1차 자료를 중시하고 일본 측 연구자는 제2차 자료를 근거로 안용복의 ‘관명(官名) 사칭’을 강조한다. 이런 현상은 연구자의 자국 중심적 관점과 태도에 기인한다. **철저한 사료 비판이 선행되지 않고는 앞으로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상식에 기초한 사료 비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울릉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는 외교문서를 ‘평범한 백성’⁶⁾이 일본 막부로부터 받아왔다는 것은 실로 납득하기 어렵다. 본고는 이런 시각과 관점을 기초로 한다.

이제 ‘안용복 밀사설’에 대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알려진 자료를 재해석하는 것은 물론, 문집류 등 종래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은 것들을 제시하려 한다. 제1차 도일과 제2차 도일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원고 분량상 제2차 도일만을 다루겠다. 양지(諒知)를 바란다.

金順立이 양양에 도착한 즉시 연안으로 돌아갔다(其中金順立一名, 下陸之後, 卽還延安本土)는 『승정원일기』(숙종 22년 9월 12일자)의 기록에 주목한다. 연안과 동서로 직선코스인 양양은 연안으로 갈 육로상의 최단거리다.

5) 원이름은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다. 이하 ‘원록각서’로 약칭한다.

6) 안용복이 私奴였다는 것은 재검증이 필요하다.

2. 남구만·윤지완의 대일외교와 안용복의 도일

숙종조, 환국(換局)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외교상으로 중심을 잘 잡아준 재상이 있었다. 소론의 영수 남구만(1629~1711)과 윤지완(1635~1718)이다. 두 사람은 ‘남·윤’이라 병칭될 정도로 가까웠다. 흥금을 터놓고 국가 정책을 상의하는 사이였다. 윤지완은 남구만 「만사(挽詞)」에서 “내 평생에 끝없는 한은 비재(非才)에다 질병으로, 조정에서 함께 일하자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⁷⁾라고 하였다. 현재 남·윤의 문집⁸⁾에서는 절친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적다. 당화(黨禍)를 염려해야 했던 살벌한 정치 풍토 때문일 것이다.

두 재상은 ‘대용(大勇)’의 표본⁹⁾으로, 정치적 역량으로 인정을 받았다. 숙종은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 남·윤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곤 하였다. ‘상하가 시귀(蒼龜)처럼 의지하였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¹⁰⁾ 『숙종실록』 졸기(卒記)에서는 “윤지완의 만년의 절개와 충성스런 말은 …… 남구만과 함께 천고(千古)에 칭송을 받게 되었다”¹¹⁾라고 하였다. 남인으로 당파는 달랐지만 같은 안산(安山) 출신이었던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은 윤지완을 제사하는 글에서 “팔순에 돌아가셨어도 요절한 것처럼 사람들이 슬퍼한다”¹²⁾면서, 윤지완이 펼친 교화에 대해 “하늘이 운행하여 봄바람이 불고 싹이 트며 대지가 든든히 받쳐 주어 구

7) 『東山遺稿』 권1, 「南相國挽」 “願我平生無限恨, 非才仍病負同升.”

8) 윤지완의 『동산유고』는 8권 가운데 제1권만 전한다(성균관대학교 尊經閣 소장). 윤지완의 무덤은 현재 북한의 개성시 영통동 五冠山에 있다. 손자 尙喜(1688~1753)가 찬술하였다는 「家狀」과 「年譜」, 李德壽가 찬술하였다는 「신도비문」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 墓表(李宗城 撰), 墓誌文(尹淳 撰)만 문집총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尹淳, 『白下集』 권9, 6a, 「領議政文忠公南九萬配享教書」 “大勇等兵刃之蹈”; 『白下集』 권9, 7b, 「右議政忠正公尹趾完配享教書」 “一身蹈湯鑊而不避.”

10) 崔昌大, 『昆侖集』 권17, 32b, 「領議政藥泉南公墓誌銘」 참조.

11) 『숙종실록 보궐정오』, 숙종 44년(1718) 윤 8월 6일 辛亥條.

12) 『星湖全集』 권57, 5b, 「祭尹領府事趾完文 代院儒作」 참조.

름이 일고 비가 조화롭게 내리듯, 못 장인으로 하여금 균형을 잡고 도끼 [斤], 칼[刀], 양날 칼[劍], 창갈[劊] 등 겉은 다르지만 속은 같은 것들이 각자 법도 안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였으니, 저 선생의 여열(餘烈: 남은 열기)이 이에 더욱 멀리 퍼진 것을 그 누가 알겠나이까”¹³⁾라고 하였다. 함축된 의미가 심상하지 않다. ‘각자 법도 안에서 제 기능의 발휘’ 운운한 것은 안용복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다.

윤지완은 외교의 명수(名手)였다. 특히 대일외교에서는 포은 정몽주, 추포(秋浦) 황신(黃愼: 1560~1617)¹⁴⁾ 이후 최고의 양사(良使)로 꼽혔다. 남구만은 윤지완의 외교 역량과 식견을 수용, 정책에 반영하였다. 윤지완의 외교 감각과 수완의 일모를 엿보기로 한다.¹⁵⁾

윤지완이 통신사로 파견되었던 1682년을 전후로 조선에는 ‘명나라 황실의 후예들이 타이완(臺灣)으로 들어갔다’, ‘정금(鄭錦)이 타이완을 점령하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후 통신사 윤지완에게 타이완의 실정을 탐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¹⁶⁾ 윤지완은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그만두도록 했다. 그럼에도 1684년에 중신 일부가 역관 박재흥(朴再興: 1645~?)을 쓰시마번에 밀파하여 타이완 정세를 탐지토록 한 일이 있었다. 윤지완은 왜인들이 농간 부릴 것을 염려하였고 그 예상은 적중하였다. 왜인들이 보내온 서한에 “타이완에 있는 정금이 청나라를 치려 하는데 조선에 길을 빌리려 한다”는 거짓 내용이 들어 있었다. 조정에서 한 바탕 크게 소동이 일어났다. 이때 서한 내용을 청나라에 알려야 한다는 이들도 있었다. 윤지완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를

13) 위와 같음 “..... 雖然乾軸轉而春噓物芽, 地紀尊而雲興雨和, 使其衆匠操勻, 斤刀劊削, 異曲同科, 各自效功於法度之內, 則孰知夫餘烈所覃, 於是焉愈遐也.”

14) 황신은 1594년(선조 27) 講和會談을 위해 도일하는 명나라 사신 沈惟敬·楊邦亨을 따라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다. 『日本往還日記』를 남겼다.

15) 尹淳, 『白下集』 권7, 「右議政忠正尹公墓誌銘」 참조.

16) 『南溪集』 正集 권4, 2b-3a, 「送尹叔麟 趾完 奉使日本 二首」 “聞說台灣在海隅, 一方人士得爭趨. 歸時倘遇行商舶, 爲問中天運有無(去歲金相行, 始聞一脈正統在鄭氏之說. 今此使歸, 又聞其地爲台灣島, 江南人士多歸之云. 故茲敢略及).”

말렸다. 또 재상 김석주(金錫胄: 1634~1684)가 남해 연안에 진(鎭)과 보(堡)를 많이 쌓아야 한다고 청하자 “공연히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없앨 필요가 없다”고 제동을 걸어 중지하게 하였다. 그는 조선과의 선린우호(善隣友好)를 중시하는 막부의 의지를 이미 간파한 바 있다.

윤지완은 조·일 간의 외교가 단일창구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폐단, 즉 쓰시마번 왜인들이 막부를 속이고 많은 비리를 저지르며 약조를 어기는 현실을 직시하였다. 1682년 통신사로 일본에 갈 때, 쓰시마 왜인들에게 “에도(江戶)에 가면 막부의 집정(執政)¹⁷⁾에게 약조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짐짓 으름장을 놓았다. 저들은 의외로 약점을 인정하고 애걸하였다. 귀로에 쓰시마번에 다시 들러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 냈다. ‘임술약조(壬戌約條)’는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¹⁸⁾

윤지완의 선견지명은 이후 대일외교에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남·윤 등은 쓰시마번의 잘못된 행태를 막부에 직접 알려 바로잡도록 하는 전략을 썼다. 이것은 1680년에 도쿠가와 막부 제5대 쇼군이 된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 1646~1709)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교린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¹⁹⁾

17) 당시 집정 가운데 한 사람이 미토번(水戶藩)의 번주 도쿠가와 미쓰쿠니(德川光國: 1628~1700)다. 윤지완은 그와 친교를 맺었다. 에도(江戶)에서 19일간 체류하면서 양측이 수차 만나唱酬하면서 상호 友誼를 도모했다. 『동산유고』 권1, 「別錄」 <倭人名號>에서 “水戶侯源光國者, 以宗室方爲執政, 能文學. 倭人比之於漢之劉向云”이라 소개하였다.

18) 尹淳, 『白下集』 권7, 9a, 「右議政忠正尹公墓誌銘」 “公痛馬島倭多擅犯條約者, 至是令首驛朴再興, 以計恐之. ‘若將至江戶, 對執政申約束.’ 倭果大讐乞哀. 再興言: ‘上使威如虎狼, 吾不敢言.’ 行近江戶, 倭乞益急, 始白公寢之. 遷到馬島, 公盛威儀, 跪諸倭於前, 數其罪而責之. 諸倭叩頭曰: ‘死罪死罪, 後不敢犯.’ 遂嚴立條, 揭之萊館.”

19) 남구만이가 짓고 예조참판 李畬의 명의로 쓰시마번에 보낸 書契는 『속중실록』, 속중 20년(1694) 8월 14일자에 “乃反拘執二人, 轉到江戶. 幸蒙 貴國大君明察事情, 優加資遣, 此可見交隣之情, 出於尋常. 欽歎高義, 感激何言”이라는 내용으로 실렸다. 같은 내용이 『竹島考證』에도 실렸는데, 일본에 보낸 시기는 ‘1694년 9월’로 되어 있다. ‘二人’은 안용복과 박어둔을, ‘大君’은 德川綱吉을 가리킨다. 또 ‘我人’이

윤지완은 1694년 4월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이때를 전후로 지난날 시묘살이 때 얻은 동상 때문에 한 쪽 다리를 잘라야 했다. ‘일각정승(一脚政丞)’이란 별명이 붙여졌다. 그 해 12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외교·국방 등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을 냈다.

한편, 남구만은 일찍이 국방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모든 일은 반드시 그 실체는 있지만 그 소리는 없게 해야 하며[有其實而無其聲], 실체는 없으면서 소리만 있게 해서는[無其實而有其聲] 안 됩니다. 국방의 경우는 먼저 누설하는 것을 더욱 금기시합니다.²⁰⁾

‘무성유실(無聲有實)’, ‘소리는 없이, 결과는 확실하게’, 이것은 실로 철학 있는 표어(標語)다. 대일외교 및 안용복 밀사설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구만은 1689년 3월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실각, 유배를 당하였다가 1694년 4월 갑술환국 이후 영의정에 올랐다. 1695년 3월 민암(閔黯)의 옥사를 잘못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고 사임했다가 10월에 복직하였다. 그는 처음 울릉도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윤지완에게 사정을 들은 뒤 달라졌다. 접위관(接慰官) 유집일(兪集一: 1653~1724)을 통해 안용복으로부터 고급 정보를 제공 받고²¹⁾ 대일외교의 중요성을 절감하였

‘二氓’으로, ‘轉到江戶’ 뒤에 “此時無轉到江戶之事, 而書中云云者, 蓋二氓認長崎爲江戶也”라는 말이 원문처럼 되어 있다. 일본인들이 임의로 고치거나 추가한 주석으로 보인다. 여기서 ‘江戶’가 에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막부를 상징하는 포괄적 의미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20) 『藥泉集』 권5, 5b, 「請勿以戎事移咨疏 十一月十九日刑曹參判時」 “且凡事必須有其實而無其聲, 不可無其實而有其聲. 至於兵事, 尤忌先洩.”

21) 『약전집』 권31, 16b, 「答柳相國-丙子十月五日」 “甲戌年接慰官兪集一之下去東萊也, 龍福呈所志, 以爲癸酉年往鬱島被虜於倭人, 入去伯耆州, 則本州成給鬱島永屬朝鮮公文. 且多有贈物, 出來則路由馬島, 公文贈物, 盡爲馬島人所奪云. 而不以其言爲必可信矣, 今見龍福再往伯耆州呈文, 則前言似是實狀.”; 『承政院日記』 19책, 숙종 22년 10월 13일자 참조.

다. 나중에는 대일외교 문제에서 남구만이 앞장서고 윤지완이 이를 따를 정도였다. 남·윤의 정책 공조는 대단하였던 것 같다. 삼정승 가운데 좌의정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 1631~1695)마저도 소외감을 느낄 정도였다. 발신일이 숙종 20년(1694) 7월 12일로 추정되는 박세채의 서한에서는 영의정 남구만과 우의정 윤지완이 대일외교를 전담하면서 자신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함을 볼 수 있다.

지금 인편에 소문을 들으니 문수산성(文殊山城) 문제와 알성시(謁聖試) 초시의 문제는 대감께서 우의정의 의견을 따르고, 동래부의 문제는 우의정께서 대감의 의견을 따랐다고 합니다. 다만 그간의 논의가 어떻게 해서 결론이 나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전하는 말이 잘못된 것이겠지요? 아니면 아랫사람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동래부의 일에 대해 주상께서 저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장차 어떻게 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비록 사무를 잘 알지 못하여 비국에 나가지 않습니다만, 이 일로 말하자면 이미 그 처음부터 간여하였으니 그 최종 결론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합니다.²²⁾

여기서 ‘동래부의 일’이란 울릉도 쟁계와 관련된 것이다. 물론 뒤에 대일외교의 실상과 안용복의 활동상 등을 박세채에게 알렸지만, 대일 외교를 주도하는 사람이 남·윤이었음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약천집』 권32, 28b, 「答崔汝和」 “…… 但其究問龍福, 得其要領, 乃得分明其事. 此足以贖其後失, 故僕亦不之深咎也. 未知廣尹知此意否.”

22) 『南溪集』 속집 권8, 27b-28a, 「與南相國-七月十二日」 “昨者任令公來傳崇教, 詢以三事, 鄙意台所裁處者似皆得宜. 惟東萊一款少異, 輸貢一二曲折, 亦台監之前日所知也. 今因人風聞文殊山城謁聖初試, 則大監從右相之見, 東萊則右相從大監之見云. 第其間說話歸趣, 無由得聞, 此豈皆傳說之誤耶? 抑被下官不能趁相報示而然耶? 且念東萊事, 自上若聞鄙僚所見, 則其將以何爲對耶. 蓋小生雖不解事務, 不赴備局, 而此則既與其始, 恐不當全昧其終.”

동래부 일의 전말을 알려주시었고 아울러 접위관이 보내온 개인 서한까지도 내려주셔서 더욱 절실하게 감사드립니다. 비록 (동래부사의) 장본(狀本)은 보지 않았으나, **안복(안용복)이 한 번 이바지함으로써** 저들(쓰시마번)의 손발이 모두 드러났으니, 이후에는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듯합니다.²³⁾

남·윤은 남인 정권의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비판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1696년에 실시한 문과(文科) 시험에 울릉도 문제를 책문(策問)으로 출제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²⁴⁾ 그러나 조정 대신들 다수가 외교 분쟁(邊釁)을 꺼려하였기 때문에 울릉도 문제에 대한 의견 통일은 어려웠다. 그렇다고 쓰시마번의 잘못된 버릇을 두고 볼 수도 없었다. 쓰시마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였다. 이에 남구만은 밀사 파견을 기획하였던 것 같다.²⁵⁾ 류상운에게 “**안용복의 사람됨은 평범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듯하다. 급할 때 혹은 쓸 만한 점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메시지가 간단하지 않다. ‘**완급가용(緩急可用)**’은, 뒤에 나올 ‘**천비전개(賤裨專價)**’란 말과 함께 남구만이 안용복을 신임하여 가까이에 두었음을 알려주는 단서다.

쓰시마번이 막부의 명령까지도 감추거나 속이는 지경에 이르자, 1694년 8월 영의정 남구만은 조정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무래도 우리의 섬이라는 증거를 동무(東武: 에도)에 알려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저들이) 성실과 신뢰(誠信)로 처리하여, 일본인의 죽도

23) 『남계집』 권9, 10a, 「答南相國-九月四日」 “東萊事, 乃蒙委示曲折, 兼賚接慰私書, 尤切感激. 雖亦不見狀本, 而安福一供, 彼之手足俱露, 此後似無可憂之端矣.”

24) 대책문은 경상도 의성 출신 申德涵(1656~1730)의 문집(필사본)에 실렸다. 《조선일보》, 2011년 11월 14일자 기사; 柳美林, 「안용복 사건, 과거시험에 출제되었다」, 『영토해양연구』 2, 동북아역사재단, 2011 참조.

25) 남구만이 류상운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정에서 별도로 일본에 사신을 보내 그虛實을 살피고자 하는데, (쓰시마번) 너희들은 장차 어떻게 대처하겠는가?”운운한 대목은 밀사 파견과 관련하여 남구만의 의중이 실린 말이라 하겠다.

도해를 금지시킬 것이다.²⁶⁾

이 말은 동래 왜관을 통해 일본 측에 빠르게 전해졌다. 당시 접위관 유집일이 왜차(倭差: 왜국 사신)에게 “앞으로 조선이 일본(막부)에 서한을 보내 안용복 등을 침책(侵責)²⁷⁾한 상황을 자세히 말한다면, 여러 섬이 무사할 것 같은가?”라고 하니 저들의 얼굴빛이 바뀌었다고 한다.²⁸⁾

『죽도기사(竹嶋紀事)』에 의하면, 조선 조정에서 막부와 직접 통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울릉도를 탐사하였는데, 그 뒤 왜관에는 조선이 울릉도를 통해 돛토리변을 외교 창구로 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왜관은 그런 경우를 걱정했다고 한다.²⁹⁾ 이것은 1696년 안용복이 울릉도를 통해 돛토리변에 들어감으로써 소문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

밀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다음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 21년(1695)에 쓰시마섬의 왜인 다치바나 마사시게(橘眞重)가 동래부에 서신을 올려 죽도에 대한 의문점 4개조를 말하였다. 22년(1696)에는 쓰시마번의 봉행(奉行) 스키무라 이오리(平眞顯: 杉村伊織) 등 6인이 우리나라의 역관 변(卞)·송(宋) 두 사람 앞으로 서신을 보내 왔다. **하나는 죽도에 대한 논의였고, 하나는 안용복이 자의로 행동한 사건을 논한 것이었다.** 이때 조정의 여론은 “하나의 빈 땅을 가지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그런데 영의정 남구만은 ‘강토는 조종(祖宗)에서 물려받은 것이니 (왜국에)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어서 ‘이 섬은 고려가 신라로부터 받고, 아조(我朝)가 고려

26) 『竹嶋紀事』 권1, 「接慰官東萊回答」 “八月二十一日, 朴同知朴僉知入館, …… 朝廷方被存込候, 此上者如何=も我国之嶋之證據を書立 東武江差上候者御誠信を以, 重而竹嶋江日本之通路御止被成間敷事=而無之候.”(권오엽 역, 『竹嶋紀事』 1-3, 445쪽)

27) 괜히 트집을 잡아 책임을 묻거나 강요함.

28) 『숙종실록』, 숙종 20년(1694) 8월 14일 己酉條 참조.

29) 『竹嶋紀事』 권2, 「同七年十月」 “和館江罷越候商人共咄申候者, 安同知儀用事被申付, 外=地頭彦人相添船式艘=而, 鬱陵嶋江被差越, 彼嶋之様子委細致見分, 其上因幡伯着江之渡口之格合具=見届, …… 東武江可申上内談=而も可有御座候哉与存候由.”(권오엽 역, 『竹嶋紀事』 2-2, 208頁).

에게서 받은 것이다. 원래가 왜국 땅이 아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왕복서한이 그치지 않다가 일이 드디어 잠잠해졌다.³⁰⁾

1693년 안용복의 제1차 도일 이후, 일본은 울릉도가 자기네 영토라면서 조선에 항의성 서신을 보내왔다. 조선은 답을 해야 했다. 다만 서신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위 자료에서 스키무라가 서신을 보내온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황상으로 1696년 안용복의 제2차 도일을 전후한 시기임에는 분명하다. ‘서한이 오고 가다가 잠잠해졌다’는 말은 일이 흐지부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밀사 파견으로 국면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죽도고』 『朝鮮国/通/使舶/于本藩』 장³¹⁾에 의하면, 제2차 도일에서 안용복은 3월 18일 죽도(竹島: 울릉도)에 들어갔다. 당시 32척의 배가 함께 도해하였다 한다.³²⁾ 『원록각서』에 의하면 안용복 일행은 이후 5월 15일 죽도를 떠나 일본으로 향하였다. 약 2개월 정도 죽도에 머물렀던 것이다. 많은 배가 함께 들어갔다는 것은, 그 규모의 과장 여부를 떠나 안용복이 자신에게 정치적 배경이 있음을 과시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개월 두류(逗留)’는 도일할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다. 즉 일본의 불법 어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화국지(和國志)』에 나오는 관련 대목을 보자.

나는 (A)대장의 명령을 받고 감세(監稅)하기 위해 울릉도에 들어갔

30) 『萬機要覽』, 軍政篇(四), 海防, <東海> “.....二十一年, 島倭橘眞重上書於東萊, 以竹島設疑問四條. 二十二年, 馬島奉行倭平眞顯等六人寄書於我國譯官下宋兩人, 其一論竹島事, 其一論安龍福擅行事. 時廟堂諸議, 以爭一空曠之地, 以開邊釁爲不可. 獨領相南九萬以爲疆土受之祖宗, 不可與之, 乃曰: ‘此島, 高麗得之於新羅, 我朝得之於高麗, 元非日本之地’, 以此往復不已, 事遂寢.”

31) 권혁성(역), 『죽도고』 하권, 282쪽 참조.

32) 위와 같음. 『원록각서』에서는 ‘모두 13척이 갔다’고 하였다. ‘32척’은 ‘13척’의 오기로 보인다.

다가 귀주(貴州)의 사람들이 국경을 침범한 것을 목도(目睹)하였습니다. 마땅히 구속하고 대장(大將)에게 상신(上申)하여 법에 따라 형벌을 정해야 될 것이지만, **(B)국경에서 귀주의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 도망하여 돌아가므로, 뒤쫓아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吾受大將令, 監稅入鬱陵, 目見貴州人犯境界者. 當拘上大將, 依律定刑. 於境上, 貴州人先自逃還 故踵之至此.

(B)는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왜 2개월을 두류하다가 도일하였는지를 알려주는 단서다. 안용복이 도일한 이유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 (A)를 보자. 『원록각서』에 따르면 1696년 당시 안용복 일행은 일본 측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호키국(伯耆国)에서 용무를 마치고 죽도에 돌아가려 한다. 12척의 배에 짐을 싣고 다시 6월이나 7월경에 귀국하여 **전(殿: 대장)에게 세금을 바칠 것이다.**³³⁾

‘전(殿)’은 ‘とのさま[殿様]’의 준말이다.³⁴⁾ 여기서는 안용복에게 도해 명령을 내린 ‘대장’을 지칭한다. 위 『화국지』에서 말한 그 ‘대장’이다. 안용복이 실제 감세관으로 활동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른바 ‘대장의 명령’이 있었음은 두 기록이 일치한다. ‘대장’은 누구일까?

안용복은 8월 29일 양양에서 월경죄(越境罪)로 체포된 뒤, 9월 22일에 동래부에서 한양으로 송치(送致)되었다. 안용복의 사건 처리가 양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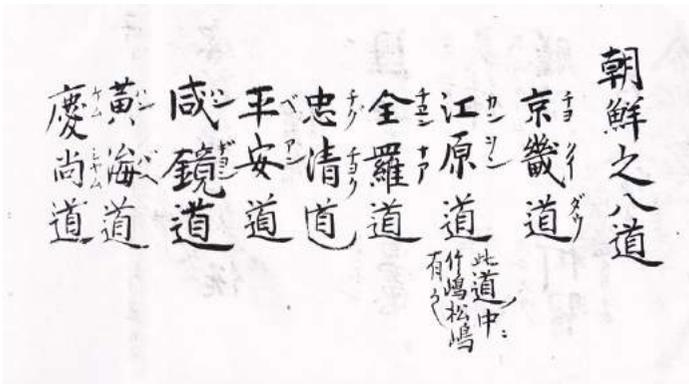
33) 『元祿覺書』, <본문 8> “伯州用事仕廻竹嶋江戻リ, 十式艘之舟=荷物ヲ積セ 改仕六七 月之比 帰国仕リ殿江も運上ヲ上ケ 申答之由申候.” (탈초와 번역은 권오엽·大西俊輝, 『원록각서: 독도의 원초 기록』, 제이앤씨, 2009, 196쪽 참조). **안용복에게 ‘귀국’이란 조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殿’은 ‘대장’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34) 일본 에도시대 다이묘[大名], 하타모토[旗本]에 대해 썼던 존칭으로, 지체 높은 무사 또는 쇼군가[將軍家] 직속의 무사를 가리킨다.

곧장 한양으로 이첩되지 않고, 동래부를 거쳐 비변사로 이첩된 것이다. 동래부사는 인조 20년(1642)부터 이조가 아닌 비변사에서 천거하였다. 이를 볼 때 ‘대장’은 동래부사일 가능성이 높다.³⁵⁾ 이는 『원록각서』에서 ‘동래부전(東萊府殿)’ 운운한 것은 이를 강력히 뒷받침한다.

안용복이 일본의 관계 요로(官界要路)에 상소(上疏)와 정문(呈文: 공문 발송)을 했음은 조·일 양국 기록이 일치한다. 특히 『죽도고』에서는 “…… 그 가운데 1척이 호키국에 소송을 하기 위해 도래했다는 이유를 말했다”(其內ノ壹艘伯耆國へ訴訟ノ爲渡來セルノ由申シ)고 적었다. 도일 목적으로 ‘소송’이라는 제한적 외교 행위를 적시한 것 역시 밀사설에 힘을 실어준다.³⁶⁾

상소와 정문 내용은 『원록각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또 『각서』에는 조선팔도를 그린 8매의 지도가 있었고, 그 중 한 장에는 울릉도·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것으로 표기되었다.



35) 관련 논고로 권정,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의 배후-동래부사와 부산첨사」(『일본어문학』 55, 일본어문학회, 2011, 505-524쪽)가 있다. 당시 일본과의 무역 및 조세 징수는 동래부사가, 부산에서 출항하는 선박 관리는 부산첨사가 담당했다. 안용복 사건 이후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정의 여론이 있었다(『약천집』 권33, 1a-1b, 「答崔汝和」 참조).

36) 『원록각서』를 보면, 당시 안용복 일행은 1693년 11월, 제1차 도일 때 일본이 준 물건과 文書(1책)를 내놓았다고 한다. 소송과 관련 있는 증거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에 지도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소지할 수 있었다. 여기서도 안용복 일행이 예사 민간인이 아님을 엿볼 수 있다. 일찍이 남구만이 어전에서 고지도를 가지고 우리의 영토를 논한 일이 있었다.

신이 신라도(新羅圖)를 보니 이 섬은 나라이름이 있었는데, 신라에 항복하여 토공(土貢)을 바쳐왔고, 고려 태조 때에 섬사람들이 방물(方物)을 바쳤습니다. 우리 태종 조에는 왜구의 근심을 견디기 어려워 안무사(按撫使)를 파견, 유민(流民)을 살살이 찾아낸 뒤 그 땅을 비워 두었습니다. 지금 왜인들이 와서 근거지로 삼도록 하는 것은 조종(祖宗)의 땅을 내버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일 뿐만이 아닙니다. **장래의 근심(將來之患)**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접위관을 보내 이전의 서장(書狀)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³⁷⁾

안용복의 영토인식은 남구만과 일치한다.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앞서 남인 정권의 지도자 목래선(睦來善)·민암 등은 공도(空島) 하나 때문에 일본과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며 안일한 대일외교를 폈다. 당시 예조에서는 쓰시마번에 ‘弊境之鬱陵島’, ‘敢入貴境竹島’ 운운하는 모호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서계를 보내 혼란을 자초했다.³⁸⁾ 울릉도는 조선령, 죽도는 일본령이라는 말장난을 한 것이다. 그러다가 남구만이 울릉도가 죽도란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전에 보낸 서계를 회수하려 했던 것이다.

3. 남구만이 말한 ‘賤裨專价’의 의미

안용복은 당시 조·일 외교에서의 큰 문제점이 에도와 직접 교통하지

37) 『승정원일기』 358책, 숙종 20년(1694) 윤5월 24일조 “南九萬曰：臣見新羅圖，則此島亦有國名，降新羅納土貢，高麗太祖時，島人獻方物。我太宗朝，不勝倭患，遣按撫使，刷出流民，而空其地。即今倭人來據，非但以祖宗之地，棄與他人，將來之患，有不可勝言者矣。更遣接慰官，前去書狀還送事言之，何如？上曰：前去書狀還送事，送言可也。”

38) 『숙종실록』, 숙종 20년(1694) 2월 23일 辛卯條.

못한 데 있음을 명확히 진단했다.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남구만과 의기 투합했던 것 같다. 남구만이 안용복을 직접 만났는지 여부는 잘라 말하기 어렵다. 다만 접위관 유집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한 정황은 분명하다. 남구만이 최석정에게 보낸 서한 내용을 보자.

광주부윤(廣州府尹)이 접위관으로 있을 때, 한편으로 장계를 올려 (조정)의 답서를 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먼저 올라와 버렸으니 이것이 바로 큰 실책입니다. …… 다만 안용복에게 낱낱이 캐물어서 요령을 알아내고 마침내 그 일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이는 뒤에 범한 잘못을 속죄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깊이 허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주부윤도 이러한 제 뜻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³⁹⁾

위에서 ‘광주부윤’은 1694년에 동래부 접위관으로 파견되었던 유집일을 가리킨다. 남구만은 유집일이 후실(後失)로 추고(推考)를 당할 때 그를 변호하였고, 이어서 광주부윤으로 나가도록 천거하였다. 실로 두터운 신임이다. 남구만은 유집일의 공을 말하면서 “究問龍福, 得其要領, 乃得分明其事”라 하였다. ‘得其要領’이란 왜인들을 다룰 요령을 터득했다는 말이고, ‘乃得分明其事’는 안용복 사건의 전말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말이다. 유집일을 통해 안용복의 도해(渡海)와 관련한 전후 사실이 남구만에게 낱낱이 전해졌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성 싶다.

한편, 남구만이 윤지완에게 보낸 의미심장한 내용의 서한 한 대목을 보자.

대감의 교시(敎示) 가운데 ‘무한우려’가 있더이다. 원컨대 번거롭더라도 한번 교시하여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떤 일입니까? **천**

39) 『약천집』 권32, 28a-28b, 「答崔汝和」 “廣尹爲接慰時, 一邊狀請答書, 一邊先爲上來, 此乃大是失著. …… 但其究問龍福, 得其要領, 乃得分明其事. 此足以贖其後失, 故僕亦不之深咎也, 未知廣尹知此意否.” 유집일이 성급하게 돌아와 추고를 당한 사실은 『속중실록』 21년(1695) 5월 18일(기묘) 조에 보인다.

비(賤裨)의 전개(專价)로 말하자면 부침(浮沈)의 염려는 없을 듯합니
다. 바라건대 이번에는 시파(示破: 說破)해 주심이 어떨는지요?⁴⁰⁾

台教中有無限憂慮, 願一仰煩之示. 未知是何等事耶? 賤裨專价, 似無
浮沈之慮, 幸望於此回示破, 若何?

얼핏 보기엔 보통의 편지글 같지만 두 사람이 비밀스런 일을 계획하
고 있음이 분명하다. ‘무한우려’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
다. 앞서 남구만이 이른바 ‘장래지환(將來之患)’과 같은 말일 것이다. 여
기서 ‘천비(賤裨)⁴¹⁾란 자신을 돕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객(家客)’이란 의
미로 사용된 예가 있다.⁴²⁾ ‘전개(專价: 耑价)’란 어떤 일을 전적으로 위임
하여 보내는 사람, 즉 ‘사신(使臣)’을 가리킨다. ‘인편’의 의미로 사용되기
도 한다. 조·일간의 외교문서에서 ‘전비’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부침’은 ① 시세나 세력 등이 성했다 쇠했다 하는 것, ② 재
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③ 우편물이 분실되어 전달되지 않는 것,⁴³⁾ ④
사람의 성격이 들뜨거나 가라앉은 것 등 전후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르
게 사용된다. 한국고전번역원 번역본에서는 “천한 제가 특별히 보낸 인
편은 도중에 편지가 없어질 우려가 없을 듯하니, 부디 바라건대 이 인편
이 돌아올 때에 답서를 보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풀이하였
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천비(賤裨)’, ‘전개(專价)’, ‘부침(浮沈)’은 중의적(은유적) 표현이 가능한
말들이다. 실제 위의 글에서는 은어처럼 사용되었다. 남구만이 인편 노릇
하는 사람을 걱정했을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서 ‘비(裨)를 비장(裨
將)⁴⁴⁾으로 보면 문맥이 확 달라진다.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죽도고

40) 『藥泉集』 권31, 14b, 「答尹右相」 참조.

41) ‘賤’은 대개 자신 또는 자신과 관련된 일을 겸손하게 말할 때 쓰는 접두어다.
물론 실제 신분이 천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42) 『비변사등록』 정조 17년(1793) 5월 27일조 “初不詳查, 委諸賤裨, 任其手勢, 所謂賤
裨, 卽純之家客.”

43) ‘誤付洪喬’의 고사에서 나왔다. 『世說新語』, 「任誕」 참조.

』 등에서 ‘안비장(安裨將)’이라 했던 안용복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기 때
문이다. 또 ‘전개’를 ‘사신’으로 보면 본고의 논지에 꼭 들어맞는다.

‘부침지려’란 물 위에 떴다 잠겼다 함으로 인한 걱정거리다. 실체가 드러나서 문제가 되거나 밑바닥에 잠겨 활동을 할 수 없음, 즉 능력 발휘를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항해상의 부침이나 성격상의 문제점, 즉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위 서한에서 단순히 ‘인편’(심부름꾼)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천비’나 ‘전개’ 가운데 한 단어만으로도 족하다. 굳이 ‘천비전개(賤裨專价)’라 하여 유의어(類義語)를 반복할 이유가 없다. 이면에 은밀한 의미가 숨어 있다. 필자는 이 녀자가 ‘밀사 안용복’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으로 본다.

‘을미(1695) 11월 16일’이라는 주기(註記)도 주목의 대상이다. 남·윤은 적어도 1695년 11월을 전후하여 밀사 문제를 깊숙이 의논하였던 것 같다. 아마도 도일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윤지완이 내고 남구만은 실행에 옮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남구만이 문인 최석정(崔錫鼎: 1646~1715)에게 보낸 서한의 일부 내용 역시 안용복 밀파(密派)와 같은 기밀 사항을 암시하는 것 같다.

보내 주신 두 통의 편지는 잘 보았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이미 요상(僚相: 동료 정승)과 의논하여 결정하였으니 다른 도리가 없었소. 우려의 소재(所在)는 다만 하늘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어찌 그 사이에 사람의 힘이 낄 수 있겠소?⁴⁵⁾

이 서한은 1696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⁴⁶⁾ ‘동료 정승(윤지완 ?)과 결정을 하다’, ‘성공 여부는 하늘에 달렸다’ 등의 말로 미루어 사안의 비

44) 문집총간을 보면 ‘裨’가 裨將의 줄임말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

45) 『藥泉集』 권32, 29b, 「答崔汝和」 “兩紙所示依覽. 其一條, 已與僚相議定, 則無他道理. 至於憂慮所在, 只在上蒼, 何容人力於其間耶?”

46) 서한의 전후 배열로 미루어, 병자년(1696) 이후 정축년(1697) 이전이다.

밀스러움과 양심적 정치인의 노심초사를 엿볼 수 있다. 당시 안용복이 남구만으로부터 비밀 메시지를 전해 받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4. ‘假稱鬱陵子山兩島監稅’

안용복이 일본에 내세운 위 직함은 그의 공술(供述) 가운데 나온다. ‘가칭’이란 ‘어떤 대상의 이름을 임시로 지어 일컬음’이다. 때로는 사칭(詐稱)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안용복이 관명(官名)을 사칭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록 등을 보면 그 문제를 거론하며 벌을 줄 것을 청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실록』에서 ‘사칭’이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가함(假銜: 임시로 준 직책)⁴⁷⁾이었기 때문이다. 또 ‘가칭’이라 한 것은 비밀리에 밀사로 파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⁴⁸⁾ 조선 역사상 가칭(가함)을 사칭으로 본 경우는 없었다.

일부 기록에는 ‘감세장(監稅將)’으로 되어 있다.⁴⁹⁾ 그러나 조선에 감세장이란 직책은 없었다. 무인을 감세관으로 파견하던 일본에서 자기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 선유(先儒)들은 ‘감세’를 대개 ‘감세관’의 의미로 보았다.

- ① “龍福自稱鬱陵搜捕將”: 안용복이 스스로 자기를 ‘울릉수포장’으로 일컬었다는 것이다. ‘수포’란 범법자를 찾아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성호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처음 말한 뒤 오주(五洲) 이규경

47) ‘가칭’이 ‘가함’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경우는, 『세종실록』 권59, 세종 15년(1433) 3월 18일 辛未條 “以吏曹正郎金何, 假稱城基巡審官, 齋事日往咸吉道, 傳教都節制使.” 참조. 이밖에도 국가적 필요에 의해 가칭한 실례, 특히 임시 무관직 ‘假將’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에 다수 보인다.

48) 이 때문에 공술에서 터놓고 ‘가함’임을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49) 안용복이 타고온 배전에 달았다는 깃발에는 ‘감세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숙종실록』 위의 직함 뒤에 나오는 ‘將使人通告’란 문구에서 ‘將’ 자를 앞으로 붙여 ‘감세장’으로 읽는 것은 잘못이다.

(李圭景: 1786~1856)이 이를 따랐다.⁵⁰⁾ ‘감세장’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성호사설』에서 ‘수포장’이라고 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 ② “龍福乃詭稱鬱陵監稅官”: 안용복이 ‘울릉감세관’이라고 사칭했다는 것이다. 이명휴(李孟休: 1713~1751),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 말한 뒤 여러 책에 전제되다시피 했다.⁵¹⁾ 오늘날 일본 측 연구자들이 안용복을 사기꾼으로 매도하는데 하나의 근거를 제공한 셈이다.
- ③ “自稱鬱陵島監稅官”: 안용복이 울릉감세관을 자칭했다는 것이다. 1763년 통신사의 서기로 일본에 다녀와 『승사록(乘槎錄)』을 저술한 원중거(元重舉: 1719~1790)의 저술에 보인다.⁵²⁾ ‘사칭’이라고 못 박은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가칭감세’ 운운한 대목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용복의 공술 내용과 안용복에 대한 남구만의 언급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1]은 『속중실록』에, [2]는 『약천집』과 『승정원일기』에 나온다(내용 같음).

[1] …… 그 사람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배를 타고 곧장 백기주(호키주)로 향하였습니다. ‘울릉·자산[于山] 두 섬의 감세(鬱陵子山兩島監稅)’를 가칭하고, 나아가 사람을 시켜 통고하도록 하였는데 본도(鳥取藩)에서 사람과 말을 보내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푸른 철릭(帖裏)을 입고 검은 포립(布笠)에 가죽신을 신고 교자(轎子)를 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말을 타고 이 주(州)로 나아갔습니다.⁵³⁾

渠不勝憤愧，乘船直向伯耆州，假稱鬱陵子山兩島監稅，將使人通告，本島送人馬迎之。渠服青帖裏，着黑布笠，穿皮鞋乘轎，諸人竝乘馬，進往本州。

50) 李瀛, 『星湖僿說』 권3, 天地門, <鬱陵島>;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論史類/ 論史, 「鬱陵島事實辨證說」 참조.

51) 李孟休, 『春官志』 권3, 附錄, <鬱陵島爭界>; 申景濬, 『旅菴全書』 권7, 疆界考(四)/ 昭代/ <鬱陵島>; 徐榮輔 등 『萬機要覽』; 成海應, 『研經齋全集』 外集 권45, 地理類, 「菟陵島志」; 尹行恁, 『碩齋稿』 권9, 海東外史, <安龍福>.

52) 元重舉, 『和國志』, 「安龍福傳」

53) 『속중실록』, 속중 22년(1696) 9월 25일 戊寅條.

[2] …… 안용복은 금령을 무릅쓰고 다시 울릉도에 갔으며, 다른 나라에 표착(漂着)하여 감세(監稅)를 가칭하며, 나아가 상소, 정문하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사단을 도출(挑出)한 죄는 진실로 죽임을 당해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⁵⁴⁾

龍福之冒禁, 再往鬱島; 及漂到他國, 假稱監稅, 將至於上疏呈文. 挑出事端之罪, 固不容誅矣.

[1]을 보면 안용복은 한 때의 격분을 이기지 못해(不勝憤慨) 도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비밀을 숨기기 위한 보호막이자 위장술이라고 필자는 본다. 11명이라는 일행의 숫자, 직책(裨將·司果 등), 업무 분장(分掌), 복식(服飾), 일사불란한 행동 등을 보면 사전에 착실하게 준비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5명의 의승수군이 동참한 것은 전라좌수영과의 연결고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일본 측에서는 안용복 일행을 사행으로 인정하고 대접하였다. 사신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확인되었을 것이다.

남구만은 서한 전반부에서 ‘모금(冒禁)’, ‘도출사단(挑出事端)’ 등의 말을 통해 안용복의 행위를 ‘돌발적’인 것으로 몰아갔다. 이것은 정작 본론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포석(布石)이다. ‘죽임을 당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고 한 것은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이어지는 다음의 말을 보자.

안용복으로 말하자면 비록 제멋대로 일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① 그 사람이 평범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듯합니다. 급할 때 간혹 쓸 만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② 장준(張俊)의 화원(花園)에 있던 늙은 병졸도 (무역을 하면서) 해외의 여러 나라에 대고 ‘대송회역사(大宋回易使)’라고 일컬었습니다. 진실로 그 일이 국가에 해로움이 없다면 꼭 죽이기까지 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 울

54) 『藥泉集』 권31, 16b, 「答柳相國-丙子十月五日」; 『승정원일기』 권367, 숙종 22년 10월 13일자.

릉도가 우리나라에 속한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일본에 가서 분변하여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를 죽인다면 이는 대마도 왜인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해 주는 것이요, 대마도의 기세를 살려서 간악함을 더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 울릉도가 반드시 우리 땅이라는 뜻을 발명하고자 할 때 (앞서의 선례 때문에) 제 주장을 펴지 못하는 바가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곳에 온 비변사 낭관(郎官)에게 들으니, ③ **비변사 재신(宰臣)들의 뜻도 안용복을 꼭 죽일 것까지는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⁵⁵⁾

①은 안용복의 인간됨과 활동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 ③ 역시 ②의 내용과 연결되는 점이 있다. 장준(1086~1154)은 중국 남송(南宋) 초기의 명장(名將)이다. 일찍이 휘하에 있던 늙은 병졸의 역량을 보고는 무역업으로 돈을 벌게 해주었다. 화원노졸은 큰 배를 만들어 해외로 다니면서 대송회역사(大宋回易使)라 일컫고 무역을 하였으며, 많은 명마(名馬)와 귀중한 보물들을 사 가지고와 장준의 군영에 군마가 풍족하도록 하였다 한다.⁵⁶⁾ 남구만은 이 고사를 인용하면서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도일’이 큰 죄가 되겠느냐는 인식을 보였다. ③은 남·윤 등 안용복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이 비변사 재추(宰樞)로 있으면서 안용복의 밀사 활동을 도왔고, 또 사건 처리를 하면서 그의 구명을 위해 나섰음을 시사한다. 안용복의 외교 행위가 비변사 주요 인사와 비밀리에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안용복과 남구만의 진술을 보면 비밀을 끝까지 지키려는 듯한 인상이 짙다. 남구만의 경우 안용복의 사람됨과 그의 의중(意中)을 잘 알고 있다

55) 上全 “龍福雖曰汎濫生事，然其爲人似非庸碌，緩急或不無可用。張俊花園老卒，亦稱大宋回易使於海外諸國，苟其事於國家無害，何必至於殺之乎？且此人以鬱島屬我國事，兩度辨明於日本，而自我殺之，則乃所以快馬島之心，增馬島之氣，使之益長其姦。而自我必欲發明鬱島之爲我地之意，則其勢不能不因此而有所摧屈矣。如何如何？因此來備郎聞之，備局諸宰之意亦有以爲不必殺者云，幸望更詢而處之如何？”

56) 『宋稗類鈔』, 권10 참조.

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용복은 남·윤 등 울릉도(독도 포함)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일부 조정 대신과 연결고리가 있었다.

‘가칭울릉자산양도감세’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에 걸치는 해상에서 어로(漁撈)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걷는 것을 구실로 만든 임시 직함일 것이다. 일본 측과 접촉하기 위해, 또 외교에서 명분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극소수 인사만이 아는 범위에서 안용복에게 가함과 임무가 주어졌을 것이다.

5. 義僧水軍과의 提携

안용복 일행 11명 가운데 승려 뇌헌(雷憲: 1642~?)⁵⁷⁾이 있다. 뇌헌은 안용복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인물이다. 뇌헌에 대한 기록으로는 『죽도고』·『원록각서』 및 ‘영취산 흥국사 중수사적비(靈鷲山興國寺重修事蹟碑)’⁵⁸⁾를 꼽을 수 있다. 내용이 서로 합치된다. 일본 측 자료에서 ‘흥국사 뇌헌’이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지난날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國’의 이체자(異體字)인 ‘ㄷ’을 ‘ㅌ’으로 잘못 읽어 ‘흥왕사(興旺寺)’라 하였다.⁵⁹⁾

뇌헌은 진사군관(進士軍官) 이인성의 당숙(堂叔)⁶⁰⁾이다. 이인성은 전라좌수영에서 맞바로 보이는 경상도 남해현(南海縣) 평산포(平山浦)⁶¹⁾ 사람이다. 뇌헌 역시 남해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남해에서 성장한 뒤 이웃 고을 여수 흥국사에서 출가했을 것이다. 『원록각서』에서는 뇌헌에 대해 ‘흥국사 주지, 55세’라 하였고 『죽도고』에서는 ‘금오승장’이라 하였다.

57) 흥국사 관련 자료에는 ‘雷軒’으로 표기되어 있다. ‘憲’과 ‘軒’을 통용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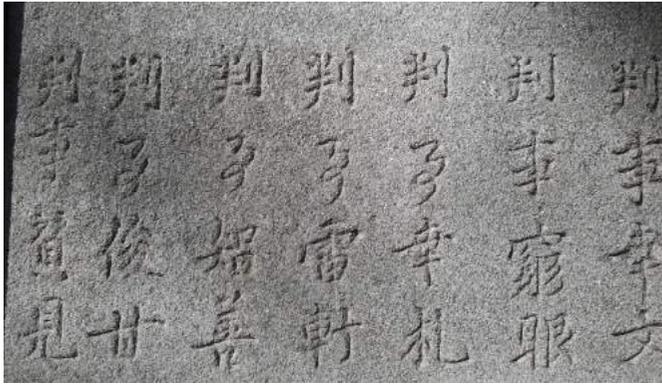
58) 崔昌大, 『昆侖集』 권17, 「興國寺重修事蹟碑」 참조.

59) 『원록각서』에서는 발음을 ‘フン ヌ ヌ’라고 병기하였다. 흥왕사라고 읽을 여지는 없다.

60) 『승정원일기』, 숙종 22년 9월 27일조 “雷憲以其五寸叔.”

61) 현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고려 때부터 수군 진지가 있었다.

홍국사 주지로 의승장을 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의승수군의 주진사(駐進寺)인 홍국사에는 임진왜란 당시부터 조선 말기까지 300명 가량의 의승수군 조직이 있었다.⁶²⁾ 의승수군 뇌헌은 바다를 잘 알고 선박을 잘 다루었으므로, 도일 당시 큰 공을 세웠을 것이다.



<홍국사 사적비, 뇌헌 부분>

도일 당시 뇌헌의 직책은 ‘판사(判事)’다. 판사란 ① 승가(僧家)의 법계 가운데 하나로 ‘판선종사(判禪宗事)’의 줄임말이다. 선종의 법계는 대선(大選)→ 중덕(中德)→ 선사(禪師)→ 대선사(大禪師)→ 도대선사(都大禪師) 순이며, 도대선사는 자동적으로 선종판사(禪宗判事: 判禪宗事)가 되어 선종을 총판(總判)한다. ② 통신사의 직책 가운데 하나다.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두었다. 상판사(上判事), 차상판사(次上判事), 압물판사(押物判事) 등의 직책이 있었다. ③ 관군(官軍)과 승군(僧軍)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두었던 직책이다. 뇌헌의 ‘판사’ 직함은 일단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뇌헌이 승려이면서 군인이었다는 점, 이판승(理判僧)이 아닌 사판승(事判僧)이었다는 점에서 세

62) 양은용, 「전라좌수영의 의승수군」, 『임진왜란과 불교의 수군』(양은용·김덕수 편, 경서원, 1992) 참조.

번 째 경우에 해당한다.⁶³⁾ 또한 『죽도고』에서 도일한 11명의 명단과 직함(업무분장)을 밝히면서 ‘憲 判事’라고 한 것을 보면, 두 번 째의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하겠다.

『원록각서』에 보면 “己巳閏三月十八日金烏山之朱印狀”이라 하고, 또 “康熙二十八年閏三月二十日金烏山朱印ノ書”라고 한 대목이 있다. 1689년에 발행한 관인(官印) 찍힌 문서를 뇌헌이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필자는 『죽도고』 등에 나오는 ‘금오승장’과 관련 있는 문서로 본다. ‘금오산’⁶⁴⁾은 여수 돌산도에 있다. 부근에 전라좌도수군통제영(全羅左道水軍統制營) 소속의 수군 기지 방답진(防踏鎭: 兪使 파견)이 있었다. 방답진 선소(船所)에는 7백 명이 넘는 수군이 배치되었다고 한다. 또한 금오산 향일암(向日庵)은 임진왜란 때 승군의 본거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주인장(朱印狀: しゅいんじょう)’이란 일본 에도시대 장군의 직인(朱印)이 찍힌 공문서를 말한다.⁶⁵⁾ 뇌헌을 승장에 임명하거나 해상통행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국사 주지의 임면(任免)은 좌수영에서 간섭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 기록을 통해 다음의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홍국사 의승군은 주로 방답진에 배치되었을 것이다.⁶⁶⁾ 둘째, ‘장군’이란 전라좌도수군절도사, 공문서는 승장 임명장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해상통행권⁶⁷⁾이었을 수도 있다. 이 문서(증명서)는 안용복 일행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63) 홍국사 사적비에서 ‘판사 뇌헌’을 기록하면서 ‘事’ 자를 草書로 써서 正字로 쓴 사람(理判僧)과 구별한 것은 이런 이유라고 추정한다.

64) 『원록각서』에서는 ‘金鰲山’을 ‘金烏山’으로 적었다. 이밖에도 명백한 誤記 및 기록자의 글쓰는 버릇 때문에 오자로 오인될 만한 것들이 상당하다. ‘金司果’를 ‘金可果’로 잘못 적은 것이라든지 ‘印’을 ‘卯’ 자처럼 쓰는 버릇이 그런 예들이다.

65) 오늘날 전하는 주인장 중에는 해상통행권(渡海朱印)이 많다.

66) 주요 임무는 探望·造船·通信 등이었을 것이다.

67) 『竹島之書附』에는 ‘渡海朱印’ 관련 내용이 나온다. 권오엽(역), 『죽도지서부』, 지성인, 2012, 125쪽.

한편, 뇌헌에 대해 『만기요람』에서는 ‘상승(商僧)’⁶⁸⁾, 『성호사설』에서는 ‘판승(販僧)’이라 하였고, 『원록각서』에서는 뇌헌의 소지품 가운데 대나무 ‘산목(算木: 산가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것들은 일단 ‘주인장’이란 말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주인장은 일본 에도시대에 막부의 장군이 발행하는 무역허가증이다. 『원록각서』에서 주인장이란 말을 쓴 것을 보면, 뇌헌을 무역업에 종사하는 승려로 짐작했던 것 같다. 그러나 조선에서 승려에게 무역허가증을 내준 사실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뇌헌을 ‘장사하는 스님’이라고 한 기록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 밀사와 관련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흘린 말이거나 일본 측의 일방적 짐작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산목’이 **선을 위한 산가지가 아닌 ‘전대[筵竹]였을 것으로 본다. 전대는 승려에게 일상 휴대품이나 다름없는 물건이다.**

안용복 일행 11명 가운데 흥국사 소속 승려가 5명이었다. 『죽도고』에서는 뇌헌 이외 4명의 승려를 ‘대솔승(帶率僧: 부하승려)’이라 하였다. 뇌헌은 ‘금오승장(金烏僧將)’⁶⁹⁾으로 그 우두머리요, 4명은 그 휘하의 의승수군이였다. 기록상으로는 사공(沙工)이 1명인데, 이들 4명은 사공 구실까지 겸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의승수군은 전라좌수영 소속 군인이다.70) 이들 5명이 일본에 들어가는 것은 전라좌수사의 비밀 허가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⁷¹⁾

68) 사례는 다수 검색된다. 『佔畢齋集』 권4, 12a, 「渡新昌大浦, 有鹽商僧轎船南岸 ……」 등 참조.

69) 僧軍이 있는 지명을 따서 붙인 것이다. 北漢僧將, 南漢僧將과 함께 金鰲僧將이 곱혔던 것 같다.

70) 흥국사에 1893년 11월 전라좌수사 李鳳鏞(1859~?)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完文 편역이 있다. 이 완문에서는 “本寺僧徒, 既是守城之軍卒, 則任意留去, 亦師律. 削髮本寺, 而移住他刹者, 大師首座外, 隨其所告, 一一刷還齊”라 하여, 다른 사찰로의 이동을 금하며, 신분은 전라좌수영 군졸과 같다는 점을 명기하였다. 의승수군은 수영 소속의 군인과 다름이 없었고 軍律의 적용을 받았다.

71) 1696년 당시 전라좌수사는 元德輝(1695년 6월~1696년 3월 재임), 柳星彩(1696년 8월~1698년 5월 재임) 두 사람이다. 류성채는 송시열의 문인이다. 『全羅左

뇌헌은 귀국 후 비변사에서 문초를 받았지만 얼마 안 있어 그 부하들과 함께 풀려났다. 7년 뒤 1703년(뇌헌 62세)에 세워진 흥국사사적비에 이름이 올라 있다. ‘나라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흔적은 없다. 뇌헌은 ‘금오승장’의 신분에 ‘판사’라는 직함을 띠고 일본에 건너갔다.⁷²⁾ 『원록각서』에서는 11명을 속(俗)과 승(僧)으로 나누고 승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였다. 승려를 우대하는 일본 상류층의 관습을 고려하였을 것이다. 뇌헌 등 의승수군이 동원된 것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⁷³⁾

6. 事後處理를 통해 본 밀사 문제

안용복 사건의 처리를 놓고 조정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밀사 문제의 의문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

안용복이 재차 도일하던 1696년 3월, 남구만은 영의정에 재직 중이었다. 그해 6월 영의정을 사직하고 영중추부사에 전임되었다. 8월 29일 안용복이 강원도 양양으로 돌아왔다. 안용복은 도일 사실을 관청에 보고하고 호키주(伯耆州)에 올린 정문(呈文)을 함께 제출하였다.⁷⁴⁾ 그러나 강원도관찰사는 그가 조정의 허락 없이 왜국과 송사를 벌였다는 이유로 구속하였다. 그가 양양에 도착하기 이전, 쓰시마번에서는 동래부에 사행을 보내 ‘울릉도 입도’를 금지할 것을 약조하였고, 아울러 쓰시마번을 통하지 않고 막부와 직접 교섭한 안용복 일행을 치죄할 것을 청한 상태였다.⁷⁵⁾

水營 歷代水軍節度使案』 참조.

72) 앞서 인조 때 義僧 출신인 獨步가 명나라에 밀사로 파견된 바 있다. 뇌헌의 도일 역시 의승이 외교에 참여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73) 1693년 제1차 도일시에는 倭船에 便乘하였다. 1696년의 제2차 도일에는 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74) 『만기요람』, 軍政篇(4) “龍福還泊襄陽, 告于官. 且獻在伯耆時呈太守文.”

75) 『만기요람』, 軍政篇(4) 및 『춘관지』 참조.

영의정 류상운은 남구만 등으로부터 사건 내막을 비밀리에 전해 들었던 것 같다. 9월 27일에는 류상운이 재외대신(在外大臣)⁷⁶⁾ 남구만·윤지완에게 사건 처리를 자문하도록 청하였고 숙종은 윤허하였다.⁷⁷⁾ 류상운이 남·윤에게 사건 처리를 넘긴 것은, 밀사와 관련한 조정의 상부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10월 5일, 남구만은 류상운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건 처리를 최대한 늦출 것을 부탁하였고, 안용복 문제는 해를 넘겨 1697년 3월에 결론이 났다.

안용복의 형은 정배(定配)로 정해졌다.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숙종은 따르지 않았다. 최종 결정에 앞서 영의정 류상운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안용복은 실정법으로는 주살(誅殺)해야 마땅하겠지만, **남구만과 윤지완은 그를 가볍게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도왜(島倭)가 서신을 보내와 전 도주(島主)에게 죄를 돌리고, 울릉도에는 왜인의 왕래를 금지토록 하는 등, 다른 꼬투리를 잡지 않고 갑자기 자복(自服)하였습니다. 이유가 없지 않은 듯합니다. ‘안용복을 경솔하게 앞질러서 처단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은 아마도 왜인이 절복(折伏: 복종)한 것을 안용복의 공으로 여겼기 때문인가 합니다.⁷⁸⁾

안용복이 죽음을 면한 것은 남·윤 등의 적극적인 구명 운동에 힘입은 것이다. 유배 기사를 끝으로 안용복은 국가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다.

돌이켜보면 숙종은 안용복을 사형에 처하는데 줄곧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최종 판결을 미루면서 조정 여론이 반전되도록 유도하였고, 사형을 주장하는 대신들에게 “수상과 잘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명할 뿐이었

76) 조정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전직 대신.

77) 『숙종실록』, 숙종 22년(1696) 9월 27일 庚辰條 “上曰: 龍福之罪, 決不可貸, 亦不可不通告馬島. 渡海譯官還來後處之可矣. 尙運請問議于南九萬尹趾完, 允之.”

78) 『숙종실록』, 숙종 23년(1697) 3월 27일 戊寅條 “尙運曰: 安龍福在法當誅, 而南九萬·尹趾完, 皆以爲不可輕殺, 且島倭送書, 歸罪前島主, 而鬱島則禁倭往來, 無他端, 而猝然自服, 似不無所由, 龍福不可徑先處斷. 其意蓋以倭人折服爲龍福之功也. 上意亦以爲然, 命減死定配.”

다.⁷⁹⁾ ‘시간끌기’로 볼 만한 여지가 많다. 말끝마다 ‘수상’ 운운한 것은 이 일이 남구만과 관련 있음을 슬며시 흘린 것이나 다름없다. 또 사건 관련자 가운데 안용복과 이인성만 문제 삼았을 뿐 나머지 9명은 ‘위협을 못이겨 따른 사람들로 에둘러 규정하고 신속히 석방⁸⁰⁾한 데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단순한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사건 초기에 류상운 등 조정의 대신들이 개인적 의견을 냈지만, 결국 제외대신이었던 남·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처리하였다. 사실상 ‘일임’한 셈이다. 안용복 처리에 대한 조정 대신의 견해는 처음의 강경론에서 나중에는 후퇴하였다. 사건의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했거나 눈치를 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정법을 거론하면서도 공을 인정하는 것은 밀사 행위에 대한 일종의 추인적(追認的) 의미가 실려 있다. 안용복 처리 과정에서 숙종이 보여준 태도는 그 역시 밀사 파견에 무관한 처지가 아니었을 암시한다. 필자는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숙종과 남·윤이 끝까지 비밀을 털어놓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했다고 생각한다.

다음 『숙종실록』 숙종 22년 9월 25일자 기사를 보자. ‘備邊司推問安龍福等’으로 표제어를 삼았는데, 내용은 ‘龍福以爲: 渠本居東萊, 爲省母至蔚山, ……」云’으로 되어 있다. 안용복을 추문(推問)한 결과를 문답식의 직접 심문이 아닌 간접 심문처럼 기술한 것이 주목된다.⁸¹⁾ ‘以爲’는 고대 한문에서 “~으로 여기다”, “~으로 삼다”, “~으로 간주하다”, “~으로 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 어떤 것을 인정할 때, 어떤 것에 대하여 그것을 사실로 느낄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다.⁸²⁾ ‘渠(거)’는 3인칭으

79) 『숙종실록』, 숙종 22년(1696) 10월 13일 丙申條.

80) 1696년 9월 27일자 『숙종실록』에서는 류상운이 “其餘只爲漁採而去, 當置而不論矣”라 하였다.

81) 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에 제공된 번역은 “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추문(推問)하였는데, **안용복이 말하기를 ‘저는** 본디 동래(東萊)에 사는데, ……」로 되어 있다.

82) 조선왕조실록에서의 용례를 보면 ‘남이 한 말을 인용하거나 간접적으로 전할 때 많이 사용하였다.

로 ‘그’를 지칭한다. ‘彼’와 같다. 왜 ‘龍福曰’ 운운하는 직접 인용이 아닌, ‘龍福以爲’니 ‘渠’니 하는 서술자 중심의 간접 인용법을 썼을까? 게다가 그 기사의 말미를 보면 “뇌헌 등 여러 사람의 공사(供辭)도 대략 같았다”(雷憲等諸人供辭略同)고 기록하였다. 사건 처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음을 느끼기에 알맞다.

추문(推問)은 미리 준비된 진술 조서, 또는 제1차 진술 조서 내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다.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조사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역시 배후 세력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남·윤 등 소론계 핵심 인물들은 안용복의 도일이 자신들과 연관되었음을 비밀에 붙이는 가운데 안용복의 구명을 위해 다방면으로 손을 썼던 것이다. 사건 처리는 약 9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돌이켜보면 남구만과 윤지완의 전략은 ‘상대의 허를 찌르는 것’이었다. 울릉도(독도 포함)를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해 흥계를 꾸미던 쓰시마번의 행태를 훤히 꿰뚫은 두 사람은 이를 막부에 직접 알리는 방법을 썼다.⁸³⁾ 또 안용복을 밀사로 보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뒤, 쓰시마번에는 이를 안용복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변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697년 2월, 동래부사 이세재(李世載: 1648~1706)⁸⁴⁾가 조정에 보낸 장계(狀啓) 한 대목을 보자.

[관왜(館倭)]: “지난 가을에 귀국 사람이 단자(單子)를 바친 일이 있었다. 조정의 명령에서 나온 것인가?”

[이세재]: “만약 따질 일이 있으면 한 역관(譯官)을 에도(江戶)에 보내면 될 것이다. 어찌 (쓰시마번이) 꺼려하는 것에 주의하여(照顧) 광준포민(狂蠢浦民: 안용복)을 보냈겠는가?”

83) 당시 조선 정부는 물론 일본 막부 역시 조·일 간의 외교 분쟁을 염려하였다. 조선 정부는 쓰시마번이 외교 분쟁을 초래할 일을 하였다면 막부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다.

84) 1696년 11월부터 1698년 1월까지 재직하였다.

[관외]: “도중(島中)에서도 이와 같이 헤아리고 차왜(差倭)를 보내지 않았다. 이것도 따로 서계(書契)를 작성하여 회답을 해달라.”⁸⁵⁾

이세재는 남구만·윤지완이 아끼던 사람이다. 그는 남·윤의 의중을 잘 알았을 것이다. 당시 서계를 보낼지의 여부를 묻는 이세재의 요청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표풍우민(漂風愚民)⁸⁶⁾의 일로 말하자면, **설령 적극 적인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정에서 이는 바는 아니다**”(至於漂風愚民, 設有所作爲, 亦非朝家所知)라고 회답하여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세재나 비변사 모두 속칭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였던 것이다. 또 안용복을 ‘광준포민(狂蠢浦民)’ 또는 ‘표풍우민(漂風愚民)’이라 함으로써 도리어 일본 측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곧 밀사 문제를 공식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인 셈이다. 이후 안용복의 도일에 대해 막부 차원의 문제 제기는 끝내 없었다. 이는 주목해야 할 점이다.

안용복을 사신으로 인정했던 일본 측의 태도는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두 번이나 같은 사람이 일본에 왔기 때문에 당시 쓰시마번을 비롯한 일본 막부에서 ‘조정의 명령을 받고 온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다.⁸⁷⁾ 이것이 일본 측의 대체적인 기류였다. 반신반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작위(作爲)’란 ‘의식적으로 행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안용복이 공술에서 ‘한 때의 격분을 이기지 못해’ 도일한 것이라고 한 말이 둘러댄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비변사의 회답에서 ‘실사’란 가정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유소작위’란 표현에서 비밀

85) 『숙종실록』, 숙종 23년(1697) 2월 14일 乙未條 “館倭言: …… 又問: ‘去秋貴國人有呈單事, 出於朝令耶?’ 臣曰: ‘若有可辨, 送一譯於江戶, 顧何所憚, 而乃送狂蠢浦民耶?’ 倭曰: ‘島中亦料如此, 不送差倭, 此亦別作書契答之.’云”

86) 풍랑에 표류한 어리석은 백성이란 뜻.

87) 『숙종실록』, 숙종 23년(1697) 9월 5일 壬午條 “癸酉龍福出送後, 禮曹書契云依律科罪, 而龍福又入耆州. 此固疑朝廷之指使, 而島主思量大體, 終不問其由.”

사행의 분위기가 강하게 풍긴다.

또 윤지완의 형이며 시임(時任) 좌의정이던 윤지선은 남구만이 말한 상·중·하 세 가지 정책을 전하면서 “상책은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용복에게 죄를 주지 않고 쓰시마변에만 책임을 돌리면 조정에서 시켜서 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을 듯합니다”(南九萬之上策, 似難輕議. 不罪龍福, 而專責馬島, 則有若自朝家使爲者然矣)라고 하였다. 이 말은 거꾸로 ‘조정에서 시킨 일’(朝家使爲)임을 슬쩍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7. 후세의 평가와 밀사 문제

안용복 밀사설은 후세인의 평가 속에도 숨어 있는 것 같다. 먼저 원중거의 『화국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자.

…… 이에 나랏일 담당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여기고, 창해(滄海)에게 길을 열라고 호통을 쳤으니, 사신의 배가 말이 달리듯 하였다. 강(剛)과 유(柔)를 스스로 잘 구사하고, 지(智)와 용(勇)을 서로 알맞게 사용하면서, 쓰시마변 사람의 악행을 내지(內地)에 널리 알려, 한 번의 사행에서 국위를 떨쳤으니, 늙름하여 인상여(蔭相如)나 감연수(甘延壽)의 유평이 있었다.

乃能擔國事爲己任, 喝開滄溟. 使舟如馬. 剛柔自濟, 智勇交周, 揚馬人之惡於內地, 張國威於一行, 凜然有蔭相如甘延壽遺風.

여기서 ‘국위(國威)’, ‘국사(國事)’, ‘사주(使舟)’, ‘일행(一行)’ 같은 말들은 안용복이 사실상 사신이었음을 강하게 내비친다. ‘강유자제(剛柔自濟), 지용교주(智勇交周)’는 장군의 풍모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는 남구만·윤지완을 영수로 하는 소론 정권의 대일 외교 슬로건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위의 글에서 ‘일행(一行)’을 하나의 동아리, 하나의 행동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앞뒤의 문맥에 맞게 하려면 ‘한 번의 사행’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 ‘사주여마(使舟如馬)’는 ‘배를 말 부리듯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역시 전체 문맥에 비추어 ‘사신의 배’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원중거 역시 중의적 표현으로 밀사적 성격을 드러내려 했음을 알 수 있겠다.

안용복을 인상여와 감연수에 비유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중국 전국시대 조(趙) 나라의 책략가인 인상여는 지혜와 용기의 표상적(表象的) 인물이다. 강대국인 진(秦)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저들에게 빼앗길 뻔 했던 화씨벽(和氏璧)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돌아온 외교의 명수다.⁸⁸⁾ 감연수는 중국 전한 원제(元帝) 때의 장군이다. 건소(建昭) 2년(B.C 37)에 진탕(陳湯)과 함께 서역 지방의 교위(校尉)로 있으면서 황제의 제서(制書)를 위조해서 여러 성의 군사를 징발한 다음, 흉노(匈奴)를 습격하여 강거(康居: 터키계 유목민의 하나)를 격파하고 질지선우(郅支單于)의 목을 베어 장안으로 보냈다.⁸⁹⁾ 감연수는 전한이 서역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는 데 제대한 공을 세웠지만, 황제를 속인 점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였다. 공죄상반(功罪相半)이라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애국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행위라면 용서할 만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사신이었던 인상여, 황제의 명령으로 속여서 군사를 일으킨 감연수의 고사를 연결하여 ‘밀사’임을 드러내려 했음을 볼 수 있겠다.

안용복을 높이 평가했던 성호 이익의 아들 이맹휴는 『춘관지(春官志)』 하권 말미에 장문의 ‘울릉도 쟁계(爭界)’를 실었다.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은 이를 사실상의 ‘안용복 전기’로 보았다. 『춘관지』 하권에는 국가 차원의 교린에 관계된 사실(史實)들이 실렸는데, 성격이 다른 글을 『춘관지』 말미에 실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성해응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88) 『史記』 권81, 「廉頗藺相如列傳」 참조.

89) 『漢書』 권70, 「陳湯傳」 참조.

안용복은 …… 마침내 섬을 돌려받고 돌아왔으니 그 일은 참으로 장하다. 그러나 교린(交隣)의 사례에는 길 수 없으므로 이맹휴가 끝에서 다 엮은 것이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것이다.⁹⁰⁾

‘교린에는 길 수 없다’⁹¹⁾는 말은 안용복이 정식으로 조정의 명을 받아 일본에 사신으로 간 것이 아님을 말한다. ‘깊은 뜻’ 운운한 것은 이맹휴가 안용복의 도일을 사실상 사행(使行)으로 보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8. 맺음말

이 글에서는 안용복의 제2차 도일이 준비된 비밀 사행이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앞서 진술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할까 한다.

1. 안용복 도일 관련 자료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당시 조·일간의 외교는 ‘쓰시마섬’ 단일 창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안용복의 도일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일본 측 자료를 보면 이점을 염려한 듯 사실대로 기록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 또 조선 측 자료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식 사행이 아니었으므로 사실이 제대로 기록될 리 없었다. 이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자국 중심의 역사서로 유명한 『죽도고』(岡嶋正義 지음)에서는 안용복 일행을 ‘사절(使節)’이라 하였다. 또 그와 관련한 기사 제목을 ‘朝鮮國/

90) 『青城雜記』 권3, 醒言, 「安龍福」 “龍福憤甚, 乃結漁丁以往逐之, 入倭. 與伯耆守抗, 奮氣強辯, 倭不能屈, 卒以島返, 其事誠壯偉. 然於交鄰則無與也, 孟休乃編之末, 其必有深意也.”

91) 한국고전번역원 번역 『청성잡기』에서는 ‘於交鄰則無與’를 ‘교린에는 도움이 없었다’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문맥상 ‘與’는 ‘참여하다’로 해석해야 뒤의 ‘深意’와 잘 연결된다. 성대중은 이맹휴가 안용복의 전기를 『춘관지』에 편입함으로써 뒷날 『문헌비고』로 이어졌다고 칭찬하였다.

通/使舶/于本藩'이라 하였다. '사박'은 사신의 배를 지칭하고 '通'은 사행의 성격을 시사한다. 정식 파견[遣]이 아니라 상호 소통하게 했다는 점, 또 사행의 주체를 '조선국'이라 하여 국가로 기술하였다. 필법(筆法)이 명확하다. 게다가 '소송'이라는 제한적 행위를 위한 도일이었음도 밝혔다. 안용복 밀사 문제는 일차적으로 『죽도고』 등 일본 측 주요 기록들이 뒷받침한다.

3. 가칭 '울릉자산양도감세'란 당시 안용복에게 주어진 임시 직함이다. '가칭'은 사실상 '가함(假銜)'이다. 일본 측과 접촉하기 위해, 독일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만든 직함이다. 즉 울릉도에 대한 징세 근거를 내세워 일본을 압박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가칭' 두 글자에는 '밀사'의 의미가 숨어 있다.

4. 남구만은 밀사 파견과 관련하여 '천비전개(賤裨專价)'라는 은어를 통해 윤지완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 "안용복은 평범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듯하다. 급할 때 혹 쓸 만한 점이 있다"고 말하였다. 후세 사람들도 안용복이 밀사였음을 알아차렸다. 한 예로 원중거 같은 이는 『화국지』에서 '사주여마(使舟如馬)'라는 중의적 표현으로 이를 은근히 나타내려 하였다.

5. 안용복 일행 가운데 5명이 전라좌수영 소속의 의승수군이였다. 이들은 애국심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중(二重)의 신분이어서 밀사로 파견하기에 적당하였다. 또 밀사 파견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도 정치적 부담이 적은 이들이였다. 군인이 동원되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6. 숙종과 남·윤은 시종 비밀을 지켜 정쟁(政爭)을 막고 비교적 원만한 계 사건을 처리했다. 숙종은 판결을 계속 미루면서 강경론이 누그러지도록 유도하였고, 남구만·윤지완의 의견을 들어 최종 판결하였다. 안용복·이인성 이외의 관련자들은 단순 종범(從犯)으로 에둘러 규정하고 이내 석방하였다. 사건을 축소하고 단순 사건으로 처리하려 한 인상이 짙다.

안용복의 도일은 상식선에서 이해해야 한다. 조·일 양국 고위급 사이에 비선(秘線)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리라고 본다. 이 비선은 1682년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윤지완이 개척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일본에서 사신이 올 때마다 윤지완의 안부를 물었다’⁹²⁾는 기록은 지나쳐 볼 것이 아니다. 필자는 이에 관한 후속 연구를 기획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자료가 없다고 예단하지 않는다. 『원록각서』 같은 A급 자료들은 어느 때 발굴될지 모른다.

안용복의 제2차 도일은 ‘밀사 외교’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수많은 의문과 오해가 풀릴 것으로 전망한다.

92) 『숙종실록보궐정요』에서는 “임술년에 使命을 받았는데 오랑캐가 그의 정성과 위엄에 감복하였다. 귀국한 후에도 언제나 그의起居를 물었다”고 하였다. 숙종 44년(1718) 윤8월 6일 辛亥條 참조.

【참고문헌】

- 『속중실록』, 『藥泉集』, 『東山遺稿』, 『竹嶋紀事』 1-5권.
 權五曄·大西俊輝(역), 『元祿覺書』, 제이앤씨, 2009.
 權赫晟(역), 『竹島考』(상·하권), 인문사, 2013.
 權靜·大西俊輝(역), 『竹嶋紀事』 1-13, 한국학술정보, 2013.
 孫承喆, 『독도, 그 역사적 진실』, 경인문화사, 2017.
 許恩珠·金貞信 역주, 『水戸公朝鮮人贈答集·木下順菴稿』, 보고서, 2013.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울릉도·독도 수호 박어둔 재조명’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2010.
 권오엽, 「南九萬의 密使 安龍福」, 『日本語文學』 65, 일본어문학회, 2014.
 권오엽, 「通政大夫 安龍福」, 『일본어교육』 50,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09.
 권오엽, 「안용복의 實像」, 2018년도 독도학술대토론회(“독도를 둘러싼 역사의 쟁점과 독도영유권의 증명”) 발표문, 2018.
 권 정,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의 배후」, 『일본어문학』, 55, 일본어문학회, 2011.
 권혁성, 「順天僧 雷憲의 일본도해」, 『일어일문학』, 55, 한국일어일문학회, 2012.
 張舜順, 「조선후기 대일교섭에 있어서 윤지완의 통신사 경험과 영향」, 『韓日關係史研究』 31, 한일관계사학회, 2008.
 趙英心, 「윤지완 使行文學의 양상과 의미」, 『洙上古典研究』 46, 열상고전학회, 2015.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Ahn Yongbok's 2nd Visit to Japan

- Ahn Yongbok, a 'secret emissary of Joseon' -

Choi, Young-Sung

This article is to reexamine characteristics of Ahn Yongbok's visit to Japan in 1696 with his companions. The fact that his visit was not on his personal level but government officials sent a secret emissary is the core of the study. Nam Guman (南九萬) and Yun Jiwan (尹趾完) are pointed as behind sending Ahn Yongbok's party as a secret emissary. They are the key heavyweights on Soron (少論) government coming to power in 1694 and unlike the previous Namin (南人) government, they took a firm line with diplomatic policy toward Japan. Official envoys were not dispatched because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the way each faction handled Ulleungdo issue. It is hard to find that Ahn Yongbok's party was envoys from Joseon's official records but it is demonstrated on Japan's historical records including *Jukdogo* (竹島考). This research studies historical evidences that support they were secret emissaries from various angles as follows. The study clarifies that ① Nam Guman and Yun Jiwan led the secret emissary dispatch as demonstrated on the collection of their literary works and; finds ② five Buddhist priests that belong to naval forces (義僧水軍, Uiseungsugun) at Yeosu Heungguksa also joined the visit to Japan and consequently explores connection with Jeollajwasuyeong (全羅左水營). ③ The study also examines that after Ahn

Yongbok's visit to Japan, King Sukjong, Nam Guman and Yun Jiwan maintained secrecy from beginning to end, prevented political disputes and smoothly dealt with the matter. ④ In addition, the study discovers a literature that understands the visit to Japan by Ahn Yongbok's party was from a dimension of 'secret emissary dispatch' and presents its contents. The reason why Ahn Yongbok affair was recorded as an individual's aberration on Joseon history is the visit to Japan by Ahn Yongbok's party was of secret emissary dispatched by government officials. To understand Ahn Yongbok's 2nd visit to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diplomacy of secret emissary' would solve numerous questions and misapprehensions.

Key words: 2nd Visit to Japan, Secret Emissary (密使), Nam Guman and Yun Jiwan, Nocheon (雷憲), Uiseungsugun (義僧水軍), Dongnaebusa (東萊府使)

이 논문은 2019년 4월 13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6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